



새정치 "필승" 다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풍양동 조영택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조 후보와 최고위원들이 보궐선거의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野터밭 지켜라” 새정치 지도부 광주 총출동

### 문재인 대표 등 현장 최고위 개최...광주 서을 보선 총력

### 재보선 대책상황실 가동...지역맞춤형 공약 등 민심잡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일 4·29 보선이 치러지는 광주 서구를 선거구를 찾아 ‘안방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22일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보고대회에 이어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위해 다시 광주에 총집결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열을 새 광주를 두 차례나 찾은 것은 이번 재보선에서 어떻게든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가 광주 서구를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새정치연합으로선 선거 초반 ‘전정배 기세’를 꺾어야 할 다급함이 더 커졌다.

이미 광주나 관악에선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의원들 일부가 전정배·정동영 전 의원 축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형 사회통합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걸고, 이날 개통한 호남 KTX를 두고 “참여정부가 호남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개인적으로도 보람차다”며 인연을 강조한 것은 이처럼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앞서 참여정부의 대표적 호

남정책이었던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보고대회에도 참석해 ‘호남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야권 분열에 따른 위기론을 강조하며 당심 결집을 위한 단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4·29 재보선에서 야권분열의 먹구름이 밀려온다”고 걱정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분열이 아닌 단결을 선택해달라”며 광주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전 전 의원을 향해 “호남 정치의 복원인지 개인 정치의 복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를 선거구 새누리당과의 대결이 아닌 전 전 의원의 일선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인근 남구의 노인건강타운을 방문, 어르신들에 대한 배식 봉사하고 오후엔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민심 챙기기도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날 광주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 종합상황실장에 양승조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6명의 인선을 마쳤다.

부본부장으로는 강훈식 전 순학규 대표 정부특보, 기동민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 박인복 전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종식 전 민주통합당 당대표비서실 차장, 정기남 전 안철수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 황인철 전 대통령비서실 통치사료비서관 등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상임고문, 박지원의원과 각각 가까운 인사들을 골고루 참여시킨 결과여서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화합을 위한 탕평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부터 재보선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선관위, 재·보선 12곳 확정

광주 서울·서울 관악을 등 국회의원 4곳  
‘곡성군 가’ 등 기초 7곳·광역의원은 1곳

오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광주 서구, 서울 관악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곡성군 가, 서울성북구 아, 인천강화군, 경기 광명시, 경기 평택시, 경기 의왕시, 경북 고령군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

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 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총 360여명의 단속인력을 운영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위장전입,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연금개혁 특위 6일 재가동

### 양당 간사 합의...실무기구 협상 난항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한동안 휴지기를 가졌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재가동된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31일 별도로 회동, 오는 6일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1일 “6일 오후에 특위를 열기로 강 의원과 합의했다”며 “현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협상 중인 실무기구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의를 담당하는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선 인구 기준으론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농·어촌은 지역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수 의원은 “현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기구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실무기구 구성되면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되, 구성되지 않으면 특위 단독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지만 새정치연합은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실무기구를 가능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접촉해 실무기구 관련 협상을 이어 갔지만 활동기간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실무기구 활동기간이 합의되지 못한 채 출범이 흐지부지되고, 6일 이후에는 곧바로 특위 차원의 논의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개특위 “국회의원 수 늘려야”

### 의원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려면 불가피” 주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1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회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제18대까지는 의원정수를 299명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선거구 조정이 난관에 부딪히자 19대 국회에 한해 예외적으

로 300명으로 1명 더 늘린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선 인구 기준으론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농·어촌은 지역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수 의원은 “현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0) 대신프리모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사 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리코엔** 골드

식사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01 식사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NAVER** 백세생활건강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소질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